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39-92  
<https://doi.org/10.29212/mh.2019..110.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안승(安勝)의 향방(向方)과 고구려 부흥운동

정원주\*

1. 머리말
2. 안승의 금마저(金馬渚) 이치(移置) 시기와 배경
3. 670년~673년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안승
4. 금마저 고구려국의 활동과 멸망
5. 맺음말

## 1. 머리말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을 비롯한 많은 유민들이 포로가 되어 당으로 끌려갔으며, 이후 당에 의한 지배와 이에 맞선 고구려인들의 저항은 여러 해에 걸쳐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고구려 부흥을 내세웠던 대표적인 집단이 검모잠(劍牟岑)과

---

\* 한림대학교 강사

안승(安勝)<sup>1)</sup>에 의해 한성(漢城)<sup>2)</sup>에 세워진 고구려국<sup>3)</sup>이었다. 이들의 활동을 위협으로 인식한 당에서는 군대를 보내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얼마 후 안승은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돌아났다고 한다. 신라로 간 안승은 당시 신라의 영역에 속한 백제고지의 금마저(金馬渚)를 할양받아 그곳에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 그 나라의 명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덕국(報德國)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sup>4)</sup>

- 1) 안승(安勝)에 대해서는 『자치통감』권201, 『신당서』권220, 고려전에는 안순(安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검모잠(劍牟岑)은 『신당서』 본기와 열전에는 검(劍)이 아닌 겸(鉗),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에서는 뉴(鈕)로 사료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따라 안승, 검모잠으로 하였다.
- 2) 한성은 지금의 황해도 재령으로 비정된다(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反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2, 1930 : 『滿鮮史研究』上世 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426쪽).
- 3)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워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국가명은 중국측 사료에도 한국측 사료인 『삼국사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신라 금마저에 세워진 고구려 유민들의 국가에 대해서는 674년 신라 문무왕에 의해 안승이 보덕왕으로 책봉되었다는 기록과 그들 유민들이 거주했던 성을 보덕성이라 불리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보덕국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서는 이들을 여전히 '고려'로 지칭하였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보덕국이라 명확하게 지칭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보덕국'이라 명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구려 고지에 세워진 고구려 부흥국은 '한성의 고구려국'(임기환, 앞의 논문, 2003)으로 신라 금마저에 이치(移置)된 이후에는 '금마저의 고구려국'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4) 池內宏, 앞의 논문, 1960 ;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1966 ;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고구려국'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 82-2, 1982 ; 김갑주,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통일기의 신라사회연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 김수태,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상고대·고려시대편』, 일조각, 1994 ;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항쟁」 『사총』 46, 1997 ; 이선호, 「고구려유민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임기환,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 강경구,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 2005 ;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고구려 정치와 사회』, 2007 ;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혜성」, 『인문학연구통권』78, 2009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 신은이, 「보덕국의 건국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0 ; 이재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31, 2010 ; 이형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

이처럼 다수의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재했으며,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거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난 시기<sup>5)</sup>나 원인<sup>6)</sup>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개의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보덕국이라는 국명조차 확실치 않으며, 행적이 가장 많이 알려진 안승이라는 인물의 행보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고구려부흥운동에서 그의 비중이나 역할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후 신라행을 택하면서 금마저에 다시 고구려 부흥국을 세우게 된 시기와 배경을 여전히 고구려고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당항쟁과 연계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안승이 금마저에 정착하게 된 시기와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

---

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66, 2013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교수정년기념논총2)』, 사계절, 2014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 2015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 2015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 75-1, 2016 ; 김강훈,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 2016 ; 김수진, 『당경 고구려 유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29, 2018.

- 5) 670년 6월로 보는 견해(신은이, 위의 논문, 2010, 9쪽 :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 2018, 8쪽), 7월로 보는 견해(池内宏, 위의 논문, 1960, 427쪽), 670년 8월 이전으로 보는 견해(김수태, 위의 논문, 1994 ; 양병룡, 위의 논문, 1997), 673년 초로 보는 견해(임기환, 위의 논문, 2003, 300쪽), 673년 윤5월경으로 보는 견해(최재도, 위의 논문, 2015, 159~160쪽), 673년 말~674년 초로 보는 견해(이정빈, 위의 논문, 2009, 151~153쪽), 674년으로 보는 견해(전준현, 위의 논문, 1982, 39쪽) 등이 있다.
- 6) 안승과 검모잠의 분열 원인을 고구려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수태, 위의 논문, 1994, 347쪽 ; 조인성, 위의 논문, 2007, 310~311), 신라에 의존하느냐 독자 노선을 추구하느냐의 향후 진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1 고대편, 일조각, 1982, 297쪽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249쪽) 등이 있다.

고지에서 673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고구려 부흥운동과 금마저의 고구려국과의 관계 및 이를 통한 신라의 의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과 금마저에 남겨진 고구려인들의 저항의 원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등장과 생존 방식 그리고 소멸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무엇보다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부흥운동은 당이나 신라 등 그 주변국들의 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의 소략함과 기록의 주체국이 갖는 관심과 의도에 의한 기록의 편향성으로 인해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논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록하는 당사국의 관점에 맞추어 기사들이 전하고자 하는 사실에 주목해 각각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안승의 금마저(金馬渚) 이치(移置) 시기와 배경

고구려 멸망 후 당의 지배에 반발해 저항을 시도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움직임은 여러 자료들을 통해 그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이다. 검모잠이 보장왕의 외손(外孫)인 안승을 왕으로 삼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자 당에서는 고간(高侃)을 동주도행군총관(東州道行軍總管)으로 이근행(李謹行)을 연산도(燕山道)행군총관으로 삼아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sup>8)</sup> 이무렵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

7)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78쪽.

8) 『신당서』 권220, 열전 고려전.

『자치통감』 권201 당기17, 고종 함형 원년 4월조.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함형 원년조.

다고 한다.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린 관련 기사를 기록에 언급된 날짜순으로 나열하였다.

가-1) 함형 원년 경오(670) 여름 4월에 이르러 ①劍牟岑이 나라를 부흥하려고 당나라에 배반하여, ②왕의 외손 안승(安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③당나라 고종이 대장군 고간을 보내 동주도 행군총관으로 삼아 군사를 내어 그들을 토벌하니, ④안승은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sup>9)</sup>

가-2) (문무왕 10년(670)) 6월에 고구려 수림성인(水臨城人) 대형(大兄) 모잠(牟岑)이 잔민(殘民)을 거두어 모아 궁모성(窮牟城)에서 궤장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法安) 등을 죽이고 신라를 향해 가다가 서해 사야도(史治島)에 이르러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의 아들 안승을 만나 한성 안으로 맞이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그리고 소형(小兄) 다식(多式) 등을 보내 슬피 고하기를 “멸망한 나라를 일으키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는 것은 천하의 공의(公義)인데, 오직 대국에게 바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왕이 도리를 잃어 멸망하였으나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맞아 임금으로 받들었습니다. 원하건대 번병(藩屏)이 되어 영원히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sup>10)</sup>

가-3) (문무왕 10년(670) 7월) 사찬 수미산(須彌山)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다. 그 책문(冊文)은 다음과 같다. 『함형 원년 경오(670) 가을 8월 1일 신축에 신라 왕은 고구려 후계자 안승에게 책봉의 명을 내리노라. 공의 태조 중모왕(中牟王)은 덕을 북산에 쌓고 공을 남해에 세워, 위풍이 청구에 떨쳤고 어진 가르침이 현토를 덮었다. 자손이 서로 잇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으며 땅은 천리를 개척하였고 햇수는 장차 800년이나 되려 하였다. 남건(男建)과 남산(南産) 형제에 이르러 화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형제간에 틈이 생겨 집안과 나라가 멸망하고 종묘 사직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백성들은 동요하여 마음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공은 산과 들에서 위험과 곤란을 피해 다니다가 홀몸으로 이웃 나라에 의탁하였다. 떠돌아다닐 때의 괴로움은 그 자취가 진문공(晉文公)과 같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킴은 그 사적이 위후(衛侯)와 같다. 무릇 백성에게는 임금이 없을 수 없고 하늘은 반드시 사람을 돌보아 주심이 있는 것이다. 선왕의 정당한 후계자로는 오직 공이 있을 뿐이니, 제사를 주재함에 공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삼가 사신 일길찬 김수미산 등을 보내 책명을 펼치고 공을 고구려 왕으로 삼을지니, 공은 마땅히 유민들을 어루만져 모으고 옛 왕업을 잇고 일으켜 영원히 이웃 나라로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이다. 삼가하고 삼가할지이다. 아울러

9)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함형 원년조.

1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6월조.

몹쌀 2천 섬과 갑옷 갖춘 말 한 필, 무늬비단 다섯 필과 명주와 가는 실로 곱게 짠 베 각 10필, 목화솜 15칭을 보내니 왕은 그것을 받으라.』<sup>11)</sup>

위의 가-1)에 언급된 기사를 사건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네 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검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다가 ②안승을 만나 그를 왕으로 세웠고, 이에 ③당에서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파견해 토벌하였으며, 그 결과 ④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④는 다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했다는 사건과 이후 안승이 신라로 달아났다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5건의 별개 사건으로 이루어진 위의 기사는 함형 원년(670) 4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를 둘러싼 정황을 함께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사건의 선후관계는 알 수 있지만 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몇 가지 단서를 토대로 한성에 고구려 부흥국이 세워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여러 중국 측 사료에도 언급되고 있으며, 함형 원년(670) 4월에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중국측 사료 특히 정사의 편찬 목적은 당의 국가경영에 관한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정부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특히 타국과 관련된 기록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에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1)의 기사를 살펴보면, 당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하는 당군을 고구려고지에 파병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는 세력을 토벌하게 하였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670년 4월 기사는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고구려고지에 파병되어 토벌을 시행했으며 그 토벌의 결과 안승이 검모

11) 『삼국사기』 卷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7월조.

잠을 살해하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록일 것이다. 어느 사실에 중점을 두었던 이 파병의 원인이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 즉 한성 고구려국의 탄생과 그 활동이므로 한성 고구려국은 670년 4월 이전에 존재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12)</sup>

가-2)에서는 검모잠과 안승의 부흥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1)에 언급된 ③당에서 행군총관인 고간을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게 했다는 기사와 ④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검모잠이 안승을 한성으로 맞이해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 뒤로는 소형 다식(多式)의 신라 파견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식을 통해 망한 고구려 사직을 잇기 위해 안승을 임금으로 세웠으며 신라에서 이를 도와준다면 영원히 번영이 되겠다고 고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살게 하였다고 한다. 금마저는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으로 백제 말기 부도(副都)로서 중시되었던 곳이다.<sup>13)</sup> 백제의 고지였지만 신라가 안승집단을 이곳에 정착시킨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신라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2) 기사 역시 여러 사건들을 670년 6월 조 기사에 함께 실어 놓음으로써 각 사건들의 발생순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들을 추정하기는 애매하다. 다만 6월 한 달 안에 모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가-3)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 달인 7월에 신라왕이 사찬 수미산을 보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였다. 책문에 함형 원년 8월 1일에 책봉한다고 하는 명확한 시간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른 개별 사실들간의 발생 시기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12) 필자는 669년 중반기에서 후반기 사이로 보았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일반적으로 670년 6월로 보고 있으며(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32쪽;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95쪽), 이정빈은 669년 4월~670년 3월(앞의 논문, 2009, 146쪽)로 보고 있다.

13)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08쪽.

가-2)와 가-3)은 모두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이자 관련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한 것이다. 이 기사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안승이 한성 고구려국의 왕이 된 뒤 신라에 사신을 보내 이를 알리자, 신라에서는 이들을 금마저에 살게 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는 것이다. 사건의 전후 흐름으로 볼 때 안승을 책봉한 장소는 금마저일 것이다.<sup>14)</sup> 6월초 마지막 기사가 금마저 이치에 대한 기사이고 7월초 기사가 안승의 고구려왕 책봉기사이므로 금마저로 옮긴 다음에 안승의 책봉이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볼 때 안승 집단의 금마저 이치는 늦어도 7월경에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가-2)의 6월초 기사는 어떤 사건의 발생을 알리기 위한 것인지 기록된 각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소형 다식을 신라에 파견한 것이 6월이라는 견해다. 이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하여 한성 고구려국을 세운 것이 670년 6월 부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sup>15)</sup> 그러나 가-1) 기사를 통해 한성 고구려국이 세워진 것이 670년 4월 이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를 알리는 소형 다식의 신라 파견 시기도 4월 이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2)의 6월 기사에서 남는 사실은 금마저 이치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전의 내용은 그 간의 경위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1)의 사실과는 다른 관점에서 안승의 신라행을 기술한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안승과 관련된 기사가 다른 여타의 사서보다 많은 사실을 전해주고 있음에도 중국측 사료 여러 곳에서 언급한 가-1)의 ③과 ④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신라측에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뒤 신라로 갔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한성에 고구려국이 세워졌으며, 다식을 통해 신라에 이를 알리면서 번병이 되고자 한다하여 금마저에 안치시켰다는 것으로 안승의 신라행을

14)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69쪽.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를 670년 6월 경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5) 양병룡, 앞의 논문, 1997, 53쪽 ; 이미경, 앞의 논문, 2015, 107쪽.

달리 기술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가-2)의 글에 언급된 것처럼 한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면서 신라에 그 사실을 알리는 사신을 파견한 목적은 고구려 부흥운동에 신라의 협력과 도움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와의 연계는 검모잠 세력이 안승과 결합하면서부터 예정된 일이었을 것이다. 안승은 669년 2월에 4천여 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투항하였다.<sup>16)</sup> 안승은 이후 검모잠을 서해 사야도(史冶島)<sup>17)</sup>에서 만나 한성으로 간 뒤 왕으로 추대되었다. 신라에 투항했던 안승이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검모잠 집단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당과 군사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협력하였으나, 당은 신라마저 계림대도독부(鷄林大都督府)라 하여 기미지배하에 두었다.<sup>18)</sup> 당은 신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간섭하고 통제하였다.<sup>19)</sup>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음에도 서쪽에는 백제 유민들로 구성된 웅진도독부가, 북으로는 고구려 유민들을 통제하는 안동도호부가 존재함으로써 전쟁 이전의 삼국정립과 동일한 구도로서 신라를 압박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는 역공을 받아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였다. 더구나 삼국 가운데 당의 침략에 유일하게 비껴있던 신라는 중간 경유 없이 당의 공격에 바로 직면하게 되면서 그 위태로움은 보

1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 하 총장 2년.

17) 사야도는 지금의 인천 덕적군도의 하나인 소야도로 비정되고 있다(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25~426쪽). 임기환은 황해도 남쪽 해안이나 강화도 부근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하였다(앞의 논문, 2003, 296쪽).

18)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3년 4월조.

19) 문무왕은 계림주대도독이라 하여 당 황제에 의해 추인 받는 존재로 격하되었으며, 군사 운용에 있어서도 통제와 감시를 받았다. 또한, 당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나 물자 등을 제공해야 했는데, 669년 정월 당 승려 법안이 자석을 구하러 왔으며, 그 해 겨울에는 신라의 쇠뇌 기술자를 당으로 데려가 그 제작 기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2~104쪽).

다 가중되었을 뿐이다.

신라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백제고지에 세워진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축출함으로써 신라의 서변에서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당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웅진도독부의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방책의 하나로 당시 고구려 고지에서 전개되고 있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이용하고자 하였을 것이다.<sup>20)</sup> 신라 북쪽방면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 당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육로를 통한 당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 신라는 웅진도독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670년 7월에는 82개 성을 함락하고<sup>21)</sup> 671년에는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함으로써<sup>22)</sup> 구백제 영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672년에는 고성성(古省城)과 가림성(加林城)을 공격함으로써 잔여세력마저 정리하였다.<sup>23)</sup> 이 시기 당과 신라의 충돌은 해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sup>24)</sup> 신라는 671년 1월 서해의 웅포(甕浦)를 지키며 해상으로 공격하려는 당의 길목을 차단하였고<sup>25)</sup> 10월 6일에는 당의 조운선 70여 척을 격파하였다.<sup>26)</sup>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시기에 구백제 영역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선제 작업으로 신라는 669년 2월 자국에 투항했던 안승을 검모잠 세력과 연결시킴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20)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90쪽.

21)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 7월조.

2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2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조.

24)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289~290쪽.

2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2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조.

끼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부흥운동을 전개하던 검모잠 세력 역시 안동도호부와 당에 효율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활동하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외부의 지원도 절실한 상태였다. 고구려 고지는 남생 형제들 간의 내전과 이어진 당과의 수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전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인적 손실도 컸다. 당은 668년 평양성 함락 후에 보장왕을 비롯한 포로들을 대거 당으로 끌고 갔으며<sup>27)</sup> 다음 해인 669년에도 고구려 고지의 유력자들을 당 내지로 강제 사민하면서 많은 물자도 수탈해 갔다.<sup>28)</sup> 이로 인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은 부족한 물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검모잠이 한성을 거점으로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곳이 전쟁의 피해를 적게 입은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sup>29)</sup> 무엇보다, 한성 고구려국이 당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신라에서 웅진도독부를 장악할 수 있을 때까지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당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부흥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왕실 혈통인 안승을 검모잠에게 연결시켰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도 지원하였을 것이다.<sup>30)</sup> 검모잠 세력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갖춘 안승을 추대함으로써 황해도 지역에 남아있는 여러 토착세력들과 활동가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sup>31)</sup> 특히 태대형(太大人)고연무(高延武)와 같은 높은 지위에

2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10년조.

28) 『구당서』 권5 본기5, 고종 하 오월 경자조.

29) 668년 한성과 대곡성등 2군 12성이 웅진도독부에 복속하였다(『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8년 6월 222일조). 큰 전투를 치르지 않고 일찍 항복함으로써 이 지역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을 것이다.

30)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7~109쪽.

31)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6~107쪽에서 안승의 세력권을 한성으로 보고 668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고 있던 인물들을 포섭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sup>32)</sup> 이처럼 한성 고구려국은 신라의 지원과 안승의 혈통적 정당성 및 황해도 지역이 갖는 인적·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해 갔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과 신라와의 연계는 군사적인 협력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 고구려국의 성장은 당의 고구려고지 지배에 위협으로 비춰지면서 가-1)에 언급된 것처럼 당에서는 행군총관으로 고간과 이근행을 파병해 이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연무와 신라의 사찬(沙飡) 설오유(薛烏儒)는 각각 정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오골성 부근에서 첫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sup>33)</sup> 670년 4월 4일 먼저 도착한 말갈병과 오골성(烏骨城)<sup>34)</sup> 부근의 개둔양(皆敦壤)에서 싸워 이겼으나 연이어 도착하는

6월 한성과 대곡성(大谷城) 등 12성을 이끌고 웅진도독부로 투항(『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6, 문무왕 상 8년 6월 22일)한 ‘유공자’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검모잠이 안승을 맞이해 한성에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안승의 영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 32) 많은 연구자들이 고연무를 신라로 귀순한 고구려 장수로 보고 있다(池內宏, 1930, 60쪽;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40쪽;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1쪽). 반면 진준현은 고연무를 고구려 멸망 후에도 압록강 이남의 어느 지방에서 당에 투항하지 않고 항전하다가 한성에 고구려국이 재건되자 인입된 부대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1982, 38쪽), 검모잠과 안승 세력과 아무런 관련 없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었다가 남하 후 결합했다고 본 견해(강경구, 앞의 논문, 2005, 92쪽), 이정빈은 검모잠이 안승을 군주로 추대하기 이전까지는 다른 행보를 걸던 인물로 669년 안동도호부의 이치를 즈음하여 이탈한 서북한 지역 ‘유공자’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고 검모잠과 안승과 관련된 고구려 부흥군이라는 견해(앞의 논문, 2009, 134~140쪽)를 제기했다.
- 33) 고연무와 설오유가 맞닥뜨린 당병을 고간이 이끄는 당군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29~430쪽; 이정빈, 앞의 논문, 2009, 136~137쪽). 반면 이상훈은 안동도호부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당군으로 보는 견해(『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96~97쪽)를 제기하였다. 당에서 파견된 이근행은 말갈인으로 서 수대에 투항했던 돌지계(突地稽)의 아들로(『신당서』 권110 열전35, 제이번장 이근행), 말갈병으로 구성된 번병을 이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연무와 설오유가 먼저 맞닥뜨린 말갈은 바로 이근행이 이끌던 번병이었을 것이며, 뒤 이어 도착하는 당병은 고간이 이끄는 군사였을 것이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 34) 노태돈은 옥골(屋骨)□□□을 오골성으로 보고 현재 중국 요녕성에 있는 봉황성

고간이 이끄는 당병으로 인해 물러나 백성(白城)<sup>35)</sup>에서 수성전을 펼치며 한반도 진출에 맞서 항전하였다.<sup>36)</sup> 이 때, 압록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성 고구려국의 영향력이 황해도는 물론 평양과 압록강 유역까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7)</sup> 그런데 당에서 행군을 꾸려 이들을 토벌하는 와중에 안승은 한성 고구려국을 실질적인 면에서 장악하고 있던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의 금마저로 근거지를 옮긴 것이다.

안승의 신라행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금마저 고구려국에서 일본으로 보낸 사절에 대한 기록으로 볼 때 상당수의 인원이 안승과 함께 신라행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황해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감안한다면 한성 고구려국을 구성했던 대부분의 인물이 이동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인물들은 그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와 달리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게 되었을 것이다. 위의 가-2)와 가-3)을 보면 신라는 안승 집단을 받아들여 금마저에 안치시키고 그를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신라에서 한성이 아닌 금마저로 옮기고 난 뒤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것 역시 신라의 목적이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

으로 비정하였다(『대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3쪽).

35) 池内宏은 설오유와 고연무 연합군의 군사행동이 대동강 유역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고 백성을 백수성(白水城)으로 추정한다(앞의 책, 1960, 430쪽) 반면, 노태돈은 『삼국사기』 권37 잡지 제6, 지리4에 압록강 이북의 미항성(未降城)에 보이는 백석성(白石城)과 동일한 성으로 추정하는 견해를 제기하였다(『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8, 1996, 209쪽). 한성 고구려국이 존재한 황해도 지역이나 교전이 일어난 오골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백성은 압록강 유역에 있는 성일 것이다.

36)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97~100쪽.

37)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9쪽. 검모잠과 안승이 이끄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은 한성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점차 세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평양의 안동도호부마저 점령하여 압록강 부근에서 고간의 당병을 막아낼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당시 응진도독부가 건재함으로써 신라는 당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당에 맞설 수 있는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고구려 고지를 벗어나 일부 세력만을 이끌고 신라로 투항한 안승을 새삼 고구려왕으로 책봉하게 된 것은 안승이 갖고 있는 명분상의 고구려 부흥군의 수장이라는 위치였을 것이다. 따라서 안승을 단순한 투항자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신라 내의 일부 영역을 떼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보호국이자 동맹국임을 자처한 것이다. 신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안승 집단을 자국에서 포용하였을 뿐 아니라 안승을 고구려 부흥국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력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라 영역 안에 안승을 둬으로써 부흥운동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38)</sup> 한편, 고구려 고지에 남아있던 고구려 부흥군은 당군에 맞서기 위해서 신라와의 협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안승의 행보와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록은 기록자측의 입장에 맞추어 기술되는데, 신라에서는 안승의 신라 투항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부흥군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결정이라는 공적인 일로 다루기 위해 가-1)의 ③과 ④의 내용을 생략했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왕 안승의 도움 요청에 대국인 신라가 부흥국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입장을 반영한 기록이 가-2)와 가-3)이라 할 수 있다. 신라는 고구려 고지에 남아 여전히 부흥운

38) 이제석도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제책과 그들의 대당 항쟁을 신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0, 38쪽). 신라에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한 이유에 대해 신라왕의 위상을 높여 형식적으로나마 당과 대등한 국제적 지위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는 견해(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8쪽), 대외적으로 신라왕의 도덕적 명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03쪽)가 있다.

동을 전개하고 있는 유민들의 대표자로서의 명분을 안승에게 부여함으로써 이후 부흥운동을 신라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670년~673년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안승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은 신라로 갔지만 고구려고지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대당항전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저항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였는지, 한성 고구려국에 속했던 부흥운동 세력들의 이후 행적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670년 4월에 당의 행군총관으로 파견되었던 고간과 이근행은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토벌을 진행하였다. 한편, 평양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에서 당군에 저항한 고구려유민들의 활약이 673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안승의 신라 내투를 673년 초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따르고 있다.<sup>39)</sup> 그러나 다음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재고함과 동시에 고간의 이후 행보를 통해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1) 양방(楊防)을 사평태상백으로 삼아 안동으로 보내 고려의 남은 무리를 안무하게 하였다. 이 때 고려 추장 뉴모잠(鈕牟岑)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

39) 임기환은 안승의 신라 투항을 673년 초로 보고 한성 고구려국이 평양일대와 황해도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3, 294~303쪽). 이정빈 역시 한성 고구려국은 존재했으며, 부흥운동을 전개한 세력은 안승을 지지하던 세력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09, 150~153쪽). 최재도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한 시점이 672년 8월 이후이며, 한성 고구려국에서 부흥운동 세력과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고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5, 159~164쪽). 반면 池內宏은 검모잠의 잔여세력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1960, 440~441쪽).

고 고장(高藏)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좌감문대장군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으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게 했다. ⑤안순이 누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났다. ⑥양방과 고간이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평양성에서 ⑦요동주로 옮겼다.<sup>40)</sup>

나-2) ⑤안순이 검모잠(鉗牟岑)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⑦고간이 도호부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고 ⑧안시(安市)에서 반란병을 깨뜨렸고 또 천산(泉山)에서 패배시켰으며 신라 구원병 2천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이 발로하(發盧河)에서 깨뜨리고 다시 싸워 사로잡거나 죽인 것이 1만을 헤아렸다. 이에 평양의 패잔병(痍殘)이 싸울 수 없자 함께 신라로 달아났다. 이에 무릇 4년 만에 평정되었다.<sup>41)</sup>

나-3) (문무왕 11년(671)) 9월 당나라 장수 고간 등이 변병 4만을 이끌고 평양에 이르러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았으며 대방(帶方)을 침공하였다.<sup>42)</sup>

나-4) (문무왕 12년(672)) 7월 당나라 장수 고간이 병사 1만을 이끌고 이근행이 병사 3만을 이끌며 일시에 평양에 이르러 8영을 세우고 주둔하였다.<sup>43)</sup>

위의 나-1)에서 고간은 안동도호부에 파견되었던 양방과 함께 비로소 평양에 있는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고 하였다. ‘비로소’<sup>44)</sup>라는 단어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군에 의해 안동도호부 공격이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음과 바로 앞 사건인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난 일이 계기가 되어 함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성 고구려국의 분열로 약화된 틈을 이용해 안동도호부를 함락했다는 것인데 이는 이전까지 평양을 점령했던 세력이 한성 고구려국이 주도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군이 안동도호부를 함락한 시기는 안순이 신라로 투항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군은 안동도호부를

40)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탁토 양방.

41) 『신당서』 권220, 열전 고려전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하 11년 9월조.

4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 7월조.

44) 『책부원귀』 권429 장수부90, 탁토 양방, ‘安舜遽殺鈕牟岑走投新羅防佩始拔安東都護府自平壤城移於遼東州’ 위의 밑줄 친 ‘始’의 자전적 해석을 ‘비로소’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안순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나는 사건으로 인해 양방과 고간이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락한 이후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기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나-2)에서는 도호부 치소를 요동주로 옮긴 뒤에 안시에서 반란군을 깨뜨렸다고 한다.

위의 나-1)과 나-2)의 기록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 ⑤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난 뒤에 ⑥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함락하고 ⑦안동도호부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기고 난 뒤 ⑧안시에서 반란병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⑧안시는 안시성으로 함형 2년(671) 7월의 일이므로<sup>45)</sup> 안승의 신라행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는 나-1)과 나-2)의 기록을 근거로 671년 7월 이전이 되어야 하며, 가-2)의 기록을 토대로 하면 670년 6월 부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간 시기를 673년으로 보는 견해는 나-1)과 나-2)의 중국측 기록 및 가-2)의 『삼국사기』 신라본기 670년 6월조의 ‘금마저 이치’ 기사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의 사실을 토대로 한다면 당군에 의한 평양의 안동도호부 함락은 670년 6월에서 안시성을 토벌한 671년 7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나-3)과 나-4)에서는 그 이후인 671년 9월과 672년 7월 고간이 이끄는 당병이 평양을 새로이 점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이전에 평양이 탈환되었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1)의 평양성 점령과 안동도호부 치소 이동에 대한 기록은 사마광의 『자치통감고이』에도 보이는 내용이다.<sup>46)</sup> 또한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요동주로 옮겼다는 기록은 나-2)에서도 보이고 있어 이 당시 고간이 이끄는 당군에 의해 평양의 안동도호부 탈환은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긴<sup>47)</sup> 이유로 추정될

45)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2년조.

46)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高宗 의봉 원년 2월조

47) 대개의 연구자들은 평양의 안동도호부 치소를 요동으로 옮긴 시기에 대해서는

수 있는 것은 우선 고구려 고지에서 유민들의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다. 위의 나-2)를 보면 고구려 부흥군은 발로하 전투에서의 대패로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자 신라로 달아나면서 4년 만에 평정되었다고 하였다. 670년 검모잠과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된 고간과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의 임무가 673년에야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년에 걸쳐 당군과 고구려 유민 간에 접전이 계속 되었는데, 특히 위의 나-3)과 나-4)의 기록을 보면 평양 부근에서의 전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가-1)에서처럼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달아나면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지역에서의 고구려 유민들의 항쟁이 이후까지 계속 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우선 이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그 세력에 대해 위의 나-2)에서는 ‘평양의 패잔병’이라고 하였다. 이 평양의 패잔병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나-3)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군은 먼저 안시성의 반군을 상대한 뒤에 9월에는 평양에 튼튼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방을 침공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는 공격해 빼앗았다는 언급이 없고 평양에 이르렀다고 하여 전 해에 빼앗았던 평양이 여전히 당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3)에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았다는 것은 평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였다는 것으로 이곳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구려 부흥군과의 충돌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기게 되면서 평양지역의 방어가 보다 허술해지자 다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이곳을 상실하게 되었다가 재탈환했을 가능성이 다.

---

나당전쟁 기간인 676년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했다. 이는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흡수되었고, 나당전쟁의 전황이 당에 불리하게 돌아감으로써 더 이상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둘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요동지역이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당군이 평양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침공한 대방은 한성을 비롯한 황해도지역을 일컬으며 이곳은 한성 고구려국이 기반을 다져놓은 곳이었다. 이는 고간이 상대할 적이 황해도 일대를 근거로 하는 부흥운동 세력임을 의미한다. 중국측 기록과 한국측 기록 속에서 한반도 북부지역 특히 한성을 비롯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것은 검모잠과 안승에 의해 세워진 한성 고구려국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안동도호부의 치소가 있는 평양성을 점령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 북부지역을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한성 고구려국의 실세였던 검모잠이 살해당하고 명분상의 왕이었던 안승이 신라로 간 이후 지휘부의 공백이 가져온 혼란이 나-1)의 평양의 안동도호부 상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한성 고구려국이 장악했던 황해도 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에 대한 고구려유민들의 저항은 한반도 북부지역만이 아니라 고구려 고지 전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sup>48)</sup> 위의 나-2)에 언급된 안시성에서의 반당 움직임만이 아니라 부여 권역<sup>49)</sup>과 책성 권역<sup>50)</sup>에서의 반란도 거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당군은 한성 고구려국의 잔존

- 
- 48) 『당회요』 권27, 행행조에서 669년 8월 당 고종이 양주(涼州)로 순행을 가려하자 상형대부 래공민(來公敏)이 “근래 고려를 비록 평정하였지만 부여가 아직 거세고, 서도(西道)를 경략하는 일은 군사가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만류하였다. 황제의 순행을 만류하기 위한 첫째 이유로 언급될 정도였으므로 당의 고구려 고지 지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였을 가능성이 높다(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 2017, 42~49쪽).
- 49) 「이타인(李他仁)묘지명」에서 이타인이 부여를 토벌하고 그 공으로 당 고종으로부터 동정원우령군장군(同正員右領軍將軍)으로 제수되었다고 한다.(권덕영, 「이타인묘지」,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388~395쪽).
- 50) 「양현기(陽玄基)묘지명」에서는 양현기가 검교동책주도독부장사(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로 재임할 때 책성 권역에서 부흥운동을 벌인 고정문(高定問)을 토벌하였다고 한다(김강훈,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고정문」, 『역사교육논집』 65, 2017).

세력들을 완전히 토벌하고 평양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로 인해 검모잠 살해 후 안승이 신라로 가면서 혼란에 빠져있던 한성 고구려국의 부흥운동 세력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지도부의 부재를 서둘러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전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해 고간 등은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으로 옮기면서 그 안전을 도모하고 도호부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복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실제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뿐 도호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669년 5월 고구려인 유력자들을 당 내지로 사민한 뒤 평양에는 빈약자만 남겨 지키게 하여, 실제적인 업무는 안동도호였던 설인귀가 가 있는 신성에서 행하였다.<sup>51)</sup> 그러므로, 이 당시 평양은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중심에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당항전을 저지하기 위해 본국과 연계해 통솔하기에도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이 당에서 평양성에 두었던 안동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으로 옮기게 된 이유일 것이다.

나-4)에서 고간이 이끄는 당병은 672년 7월에도 군사를 이끌고 일시에 평양에 이르러 8영을 세웠다고 하였다. 이 전의 전황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역시 평양이 전장의 주요 지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 해에 있었던 평양 점령이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인지 새로이 탈환한 것인지 이 기록만으로

51) 설인귀(薛仁貴)는 669년 평양에서 신성으로 옮겼다고 한다(『구당서』 권83 열전33, 설인귀 ; 『신당서』 권124 열전36, 설인귀). 이때, 함께 평양의 안동도호부에 있던 유인궤(劉仁軌)도 당으로 회군했던 것으로 보인다(구당서』 권84 열전34, 유인궤) 아마 66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고구려유민들을 당 내지로 대규모 사민한 이후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은 대규모 사민 이후 빈약자만 남겨 안동도호부를 지키게 하였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신성에서 보고 평양의 안동도호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소규모 군과 관리만 남아 웅진도독부와 신라 및 주변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의 업무만 담당했을 것이다(정원주, 앞의 논문, 2018, 89~91쪽).

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기록으로 볼 때 평양은 다시 고구려 부흥군에게 재점령되었던 것을 당이 또 다시 탈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1) (문무왕 12년(672)) 8월 한시성(韓陟城)과 마읍성(馬邑城)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군대를 전진시켜 백수성(白水城)과 5백 보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우리 군사가 고구려 군사와 함께 역전하여 수천 급을 베었다. 고간 등이 퇴각하자 석문(石門)까지 따라가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대패하여 대아찬 효천(曉川), 사찬 의문(義文)·산세(山世), 아찬 능신(能申)·두선(豆善), 일길찬 안나함(安那含)·양신(良臣) 등이 죽임을 당하였다.<sup>52)</sup>

다-2) (함형 3년(672) 12월) 고간이 고구려의 남은 무리와 백수산(白水山)에서 싸워 꺾뜨렸다. 신라가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구원하였으나 고간이 꺾뜨렸다.<sup>53)</sup>

다-3) 그 전에 법민왕(法敏王)이 고구려의 반란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점거하여 소유하니, 당 고종이 크게 노하여 군사를 보내 치게 하였다. 당나라 군대가 말갈군과 함께 석문(石門) 들에 주둔하니, 왕이 장군 의복(義福)·춘장(春長) 등을 보내 방어케 하였는데, [이들은] 대방의 들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장창당만이 따로 주둔하다가 당나라 군사 3천여 명을 만나 그들을 잡아서 대장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당에서 함께 말하기를 “장창당이 홀로 진을 쳤다가 성공하였으니 반드시 후한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한갓 수고로울 뿐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각각 자기 군대를 갈라 분산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말갈과 함께 [우리 군사들이] 미처 진을 치지 아니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장군 효천과 의문 등이 죽었다. ....상장군을 따라 무이령(蕪蕪嶺)으로 나오니 당나라 군대가 뒤를 추격하였다. 거열주(居烈州) 대감 일길찬 아진함(阿珍含)이 상장군에게 말하기를 “공 등은 힘을 다하여 빨리 떠나가라! 내 나이 이미 70이니 얼마나 더 살 수 있으랴? 이때야말로 나의 죽을 날이다.” 하며 창을 비껴 들고 적진 가운데로 돌입하여 전사하였는데, 그 아들도 따라 죽었다. 대장군 등은 슬며시 서울로 들어왔다.<sup>54)</sup>

다-4) 연산도총관 우령군대장군 이근행이 고구려 반란군들을 호로하(靺靺河) 서쪽에서 대패하여 수천 인을 사로잡았다. 나머지 무리는 모두 신라로 도망쳤다.<sup>55)</sup>

5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2년조.

53)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3년 12월조

54) 『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위의 다-1)을 보면 당군은 672년 8월에 한시성과 마음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고 한다. 이 두 성은 평양 부근의 성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6)</sup> 당군은 이어 백수성 부근으로 이동했는데, 이때 신라군과 고구려 부흥군이 반격해 수천 급을 베었다고 하였다. 이에 퇴각하는 당군을 쫓아 석문까지 갔지만 대패하였다. 당군은 평양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의 본거지인 황해도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특히 고구려국이 처음 세워졌던 한성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다. 평양을 빼앗긴 부흥군은 다시 한성을 근거지로 대당항전을 벌이게 되었으므로 백수성<sup>57)</sup>과 석문은 그 경로상에 있었을 것이다.

백수성은 재령강<sup>58)</sup> 혹은 예성강 하류<sup>59)</sup>로 비정되고 있다. 7월에 평양을 점령하고 8월에 평양 부근의 성을 함락하였다면, 고구려 부흥군의 세력권 내로 접어들어서는 쉽게 이곳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호로하가 있는 임진강 유역에 이르는 것은 다음 해인 673년 윤5월경이므로 전쟁의 진행 속도로 볼 때 백수성은 재령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석문은 서흥 서북방에 있는 석문사(石門寺)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sup>60)</sup> 이 기록은 다-1)에는 8월조에 언급되어 있으나 다-2)에는 12월로 되어 있고, 『구당서』 고종본기에는 동(冬)으로 되어 있다. 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일대에서 고구려 부흥군과 당 사이에 연이은 격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당군은 672년 8월에 평양성에 주둔한 뒤에 그 해 말에 겨우 황해도 북부인 서흥까지 고구려 부흥군을 몰아붙였을 뿐이었다. 또한 기록으로는 평양 인근의 한시성과 마음성 공격만을 언급하

55) 『자치통감』 권202 당기18, 고종 함형 4년 윤5월조.

56) 池內宏, 앞의 논문, 1930, 441쪽;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3쪽 각주 49)

57)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수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고구려본기에는 ‘백수산’으로, 『구당서』 고종본기에는 ‘횡수’로 쓰여있다. 백수성, 백수산, 횡수는 유사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3쪽).

58) 池內宏, 앞의 논문, 1960, 439~440쪽; 최재도, 앞의 논문, 2015, 154~155쪽.

59)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118쪽.

60) 이병도, 위의 책, 1977, 118쪽

고 있으나, 고구려 부흥군은 8월 이전에 평양을 점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의 나-3)에서 당군이 평양에 보루를 쌓고 대방을 공격했다고 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거나 오히려 고구려 부흥군에게 밀려났을 것이다. 만약 이때 당군의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토벌이 성공했다면 다음 해에 잔여 세력 소탕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 부흥군 토벌은 672년에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인 673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더욱이 고구려 부흥군은 평양 주변의 성들부터 백수성 전투, 그리고 석문 전투 등 한성이나 황해도 주변에서의 전투가 그해 12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구려 부흥군의 결집과 향전이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당측에서 진행한 671년의 토벌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다시 평양을 뺏기고 북쪽으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을 두고 당군과 고구려 부흥군 간에는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저항군을 위의 나-2)에서 평양의 패잔병이라 하는 것에서도 이들이 평양을 점거하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평양에서 밀리면 황해도 지역에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북진해 평양을 재탈환하였을 것이다. 앞의 나-3)에서도 대방으로 지칭되는 이 지역에서의 당의 토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672년 말까지 거센 저항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그 세력의 근거지는 황해도였을 것이다. 이 지역의 기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검모잠과 안승의 한성 고구려국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을 평양의 패잔병이라 한 것은 안승이 신라로 떠난 후 남아있던 저항군들이 그 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에서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가면서 한성 고구려국이 와해된 것으로 보고 여전히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을 그 여당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평양의 패잔병이라 그들을 칭했던 것이다. 한편, 신라에서는 금마저로 간 안승에게

부흥운동의 수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식 책봉하였기 때문에 고구려고지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안승이 검모잠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거점을 옮기는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은 원 고구려의 국도였으므로 그 상징성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구려 유민 세력들과 연결하기에도 한성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압록강을 넘어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저항하는 부흥운동 세력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평양은 한성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에 한성 고구려국은 평양성의 안동도호부를 점거하게 되자 당군의 공격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에 적절할 뿐 아니라 고구려 부흥에 유리한 이곳으로 그 근거지를 옮기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신라의 의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몰아내고 백제지역을 장악하는 동안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만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평양으로 중심지를 옮기게 되면, 그 세력 판도가 더 넓어질 뿐 아니라, 다른 부흥군 세력과 연계함으로써 신라가 개입할 수 없는 독자적 세력으로 커갈 수 있음을 경계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한성 고구려국의 본거지를 금마서로 옮기자는 제의를 신라에서 먼저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군의 본격적인 공세를 핑계로 한성 고구려국 지도부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이들의 저항운동이 실패했을 경우 최후의 도피처가 될 수 있도록 신라 내에 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안승과 검모잠의 갈등을 초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sup>61)</sup> 친신라파인 안승을 부추김으로써 검모잠을 살해하도록 유

61) 검모잠과 안승의 분열 원인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각주 11) 참조.

도하고 이를 통해 그가 한성 고구려국을 장악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안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물들은 검모잠 살해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의 구성원은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 중에 피난해온 인물들에서, 당의 지배에 반항하거나 특히 669년의 사민책을 피해 달아난 인물들, 검모잠에 의해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이에 가담하기 위해 참여한 인물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성은 고구려 삼경(三京) 가운데 하나임에도 일찍이 웅진도독부에 투항함으로써 그 지역 토착세력들은 전란에서도 피해를 덜 입었을 것이다. 안승이 한성 고구려국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들 토착세력들과 피난해온 많은 지배층 인사들이 여기에 가담하였을 것이다. 한성의 고구려국에는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력을 키워 당에 대항해야 한다는 세력도 있었지만, 자신들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몸을 사리는 계층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당의 압박을 피해 피난해 있던 일부 지배층에서는 자신들의 예전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 한성의 고구려국에서도 이를 누리고 있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고연무와 안승과 달리 고구려에서 상위관등에 속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지방의 중·하급 귀족층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당이나 신라에 투항했을 때 그들의 기존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계층이었으므로 고구려 멸망 이후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을 뿐 아니라 당의 대규모 사민책으로 인한 불만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군의 본격적인 침공에 직면하게 되자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신라행을 택한 안승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한성은 안승의 본거지였던 곳이므로,<sup>62)</sup> 이곳의 토착세력들은 검모잠보다는 안승에 보다 협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역시 검모잠이 평양으로 근거지를 옮기려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안승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모하여

62) 정원주, 앞의 논문, 2018, 106쪽.

검모잠을 제거한 뒤, 이들과 함께 신라에서 제공한 금마저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다.

이당시 검모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은 당에서 파견된 고간의 당병을 막기 위해 출정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연무였을 것이다. 고연무에 대해서 안승의 휘하 장수로 669년 2월 신라로 투항할 때 함께 한 인물로 보기도 하고,<sup>63)</sup> 심지어 검모잠 살해 후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고연무는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하는 시기에 개돈양에서 당군과 교전한 뒤 백성에서 신라군과 이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고연무와 안승은 다른 행보를 걸었던 것이다.

안승이 검모잠을 살해 한 뒤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신라로 가자, 신라는 그들을 금마저에 안치하고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했던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 계승의 정통성을 안승이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결정을 고구려 부흥군 측에서는 신라의 원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뇌부가 빠져나간 한성이 아니라 요동에서 오는 당군을 저지하고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는 부흥운동 세력과 연계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부흥군 세력들은 평양으로 본거지를 옮기고 대당항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것은 아마 고연무가 아니었을까 한다. 오골성 전투에서는 고연무를 태대형이라고 하였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실패하고 금마저로 갔던 그가 다시 사서에 보이는 것은 문무왕 20년(680)이었다. 신라에서 안승에게 왕의 여동생을 아내로 주자 이에 대한 답례로 고연무를 사신으로 보내는데 이때, 그를 대장군이라 칭하고 있다.<sup>64)</sup> 이는 금마

63) 池内宏, 앞의 논문, 1930, 66쪽;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40쪽;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39쪽.

64)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 5월조.

저에서 안승에 의해 대장군의 직위를 얻었다기보다는 한성의 고구려국이 분열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한 중심인물로서 고연무에게 부여된 칭호였을 것이다.

고연무는 680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안승이 신문왕 3년(683)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경주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86년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그들의 관직체계내로 흡수할 때 3등관인 주부(主簿)까지만 보이고 그 위인 태대형이나 대대로에 해당하는 관직은 보이지 않는다.<sup>65)</sup> 한편 보덕성민의 반란에서도 대장군이었던 그는 보이지 않고 대문이나 실복이 주축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신라가 보덕성민의 반란 기록에서 일부로 그에 관한 기록을 제외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는 이 무렵 병사했거나,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듯이 그를 제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죽음은 대외외교가 중단된 672년 무렵이 아니었을까 한다.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금마저로 가게 된 고구려 부흥군들에게는 고연무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안승측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고구려 부흥의 의지를 가진 고연무와 그를 따르는 고구려 유민들로 인해 안승은 금마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고구려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연무가 죽자 그는 홀가분하게 신라 왕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에서는 금마저에 있던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함으로써 고구려 부흥군의 명분상의 주체가 그임을 대외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안승은 금마저에서 있으면서 고구려 고지에서 벌어지는 부흥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고구려 고지에서의 전투는 시간을 요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주도한 것은 고연무였으며, 그 중심은

65) 『삼국사기』 권40 잡지9, 직관 하.

평양에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당측에서는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이 신라로 달아나자 한성의 고구려국이 해체된 것으로 보고, 이들 부흥군을 ‘평양의 패잔병’이라 칭했던 것이다.

한성 고구려국의 지휘부의 상잔과 당군의 토벌로 항전을 계속하던 고구려 부흥군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다시 그 세력을 결집해 무력 항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라군의 본격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670년 초 고연무와 설유연연합군이 당과 전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만 적혀있지만, 위의 다-1)의 백수성 전투는 『자치통감』과 『구당서』 등 여러 중국측 사료에 자세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이 당시 고구려 부흥군과 신라군의 연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다-1)을 보면 신라군의 지휘관들이 17관등 가운데 5위인 대아찬부터 6위 아찬, 7위 일길찬, 8위 사찬 등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다수의 인물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원군의 규모가 훨씬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과의 군사동맹에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당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에 신라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671년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한 공세를 취하게 된다. 당에서는 토번전의 실패로 670년 6월 직위를 상실했던 설인귀를 계림도행군대총관으로 삼고 해로를 통해 신라를 공격하였을 뿐 아니라, 설인귀가 직접 신라 문무왕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이러한 신라의 태도를 경고하였다.<sup>66)</sup>

그러나 신라는 웅진도독부를 몰아내고 완전히 백제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당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자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위의 다-3)의 석문 전투를 통해 신라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군은 석문전투에서 패하자 곧바로 신라로 퇴군해 버렸다. 오골성 전투에

6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 7월조.

서 설오유 부대가 부근의 백성에서 항전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태도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패배해 돌아간 장수들에 대해 신라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았다.<sup>67)</sup> 이는 신라가 670년 대당전쟁 초반과는 달리 고구려 부흥군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고구려 부흥군은 4년에 걸쳐 계속된 전쟁과 신라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인해 패배를 거듭하게 되면서 차츰 남쪽으로 밀리게 되었다.

신라는 백제고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뒤에는 고구려 부흥군을 적절한 선에서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여전히 고구려 고지에 존속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신라의 변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sup>68)</sup> 이를 위해 서서히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한편 형식적인 선에서 원병을 지원하였을 것이다. 위의 다-5)를 보면 다음 해인 함형 4년(673) 윤 5월에는 이미 황해도 지역을 거의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하까지 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부흥군은 호로하 부근에서의 전투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5)에서는 이 전투로 수천 명이 사로잡혔다고 하였으며, 나-2)에서는 죽거나 사로잡힌 수가 1만이라 하였다. 이 패배

67) 김유신은 아들인 원술이 이 전투에 참가했다가 도망해 오자 왕명을 욕되게 하고 가훈을 저버렸으므로 목을 베려고 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원술이 비장이며, 혼자에게만 중한 형벌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며 반대하였다(『삼국사기』 권43, 열전 김유신 하). 이로 볼 때 패배해 도망해온 신라장수들에게 어떠한 벌도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8) 설인귀 답서에서 문무왕은 웅진도독부를 공격하게 되는 명분이 100년 후에는 그들에 의해 신라가 병합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강조하였다. 신라는 6세기 중반 한수유역을 차지한 후 북으로는 고구려, 서남쪽으로는 백제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수와 당과의 외교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진덕여왕대에 김춘추의 교섭으로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연호를 쓰고 당의 의복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후의 예를 취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 한 뒤 이번에는 당으로부터 자립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신라에서 고구려 부흥군이 신라의 북쪽 국경에 존재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후 살아남은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로 들어가게 되었다. 669년 검모잠의 거병과 한성의 고구려국 재건에서 시작된 고구려 고지에서의 유민항쟁은 673년까지 격렬한 저항을 거듭하다 실패하고 신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당군과의 전쟁은 신라군이 주도하게 되면서 나당 사이의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 4. 금마저 고구려국의 활동과 멸망

670년 6월경 금마저로 간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신라의 승인하에 그곳에서 고구려국을 재건하였다.<sup>69)</sup> 안승 집단이 금마저에서 자치국을 허락받게 된 것은 그 정착과정 중에 발생한 신라의 웅진도독부를 비롯한 백제고지 82성을 취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라는 이에 대한 포상과 문책을 하는 시점에서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는 안승이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70)</sup>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편지에 쓰인 밖에서 강한 군사를 끌어들이었다는 표현<sup>71)</sup>과 관련지으면 안승은 신라로 갈 때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갖춘 상태였을 것이다.

670년 8월 신라는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함으로써 여전히 그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대표하고 있음을 승인하였다. 안승은 고구려 고지에서 대당전쟁을 벌이고 있는 부흥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

69) 신라가 안승과 고구려 유민들을 백제고지인 금마저로 안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웅진도독부와 백제유민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이기백,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 『한국사 강좌 고대편』, 일조각, 1982, 299쪽 ; 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7~348쪽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78, 2015, 113~114쪽). 한편, 당의 신라 침공을 대비해 금강일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1쪽)도 있다.

70) 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4쪽.

7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1년 7월조.

사할 수는 없었지만, 금마저에서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제를 갖추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高麗使)’과견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1) 천지천황 10년(671) 정월, 정미에 고려가 상부(上部) 대상(大相) 가루(可婁)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sup>72)</sup>

라-2) 천무천황 원년(672) 5월, 무오에 고려가 전부(前部) 부가번(富加旆) 등을 보내 조를 올렸다.<sup>73)</sup>

라-3) 천무천황 2년(673) 8월, 계묘에 고려가 상부 위두대형(位頭大兄) 감자(邯子)와 전부 대형 석간(碩干) 등을 보내 조공하였다. 신라는 한나말(韓奈末) 김리익(金利益)을 보내 고려의 사신을 축자(筑紫)까지 보냈다.<sup>74)</sup>

위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 사신은 금마저의 안승집단이 파견한 사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sup>75)</sup> 이미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에 고구려 혹은 고려를 칭할 수 있는 집단은 금마저에 정착한 안승의 고구려유민집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의 라-1)을 보면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671년 정월이었다. 금마저에서 일본으로 가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670년 말 경에 출발했을 것이다.<sup>76)</sup> 670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안승이 금마저에 정착하고 8월 1일에 신라에서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던 시기를 고려한다면 일본으로의 사신파견은 빠른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들의 관등은 대상, 위두대형 등 상위 오관등 이상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가-2)를 보면 한성에서 안승이 왕이 된 뒤에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된 다식이 10관등인 소

72) 『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 정월조.

73) 『일본서기』 권28, 천무천황 원년 5월조.

74)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조.

75) 村上四男, 앞의 논문, 1966, 30~31쪽.

76) 최재도는 대외 교섭을 월별로 분석해 고려사가 파견된 계절의 이동 시간을 추정했는데 정월에 도착한 1차 고려사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출발해 북풍의 영향을 받아 짧은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015, 161~162쪽).

형이었던 반면, 왜에 파견된 가루는 4관등인 대상이었고, 감자는 5관등인 위두대형이었다. 또한 다식은 부명을 칭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일본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들은 상부, 전부 등 부명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그를 따라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식의 관등체계를 정비하고, 5부도 재편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외교업무도 개시하였다.

위의 사실로 볼 때 한성의 고구려국에서는 고구려 부흥을 위해 안승을 왕으로 세웠으나 이는 부흥운동을 이끌기 위한 상징적인 대표라는 의미만 있었을 뿐 국가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안승이 왕위에 오른 지 오래지 않아 당의 군대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파병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고구려 부흥국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군사력과 유민 통합이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몇 직책 외에는 고구려 멸망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금마저에 정착하게 되면서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서둘러 고구려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 고지에서 활약하는 부흥군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금마저는 백제 말기에 일종의 부도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곳이었다. 삼국시대 최대의 사원이었던 미륵사 유적이거나 왕궁리의 궁성이 있던 곳이다.<sup>77)</sup> 그러므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국가 체제를 갖추기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를 따라온 인물들이 고구려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이러한 고구려국의 변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1)과 라-2)의 672년까지 일본

77) 임기환, 앞의 논문, 2009, 315~308쪽.

으로의 사신 파견은 신라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sup>78)</sup> 이는 금마저로 고구려국의 본거지를 옮기고자 했던 신라의 입장에서는 고구려 고지에 남아 대당항전을 벌이는 고구려인들에게 신라의 우호적인 모습을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금마저의 고구려국에 정착한 안승 집단이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해 그들의 자리를 안정시키면 이후 고구려 부흥군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73년 말 당과의 항쟁에 실패한 고구려 부흥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본격적인 나당전쟁을 앞둔 신라의 제안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당군에 패해 많은 군사를 잃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고구려부흥군의 전력은 본격적인 나당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구백제지역을 통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신라군의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고구려 부흥군은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금마저로 가게 되었을 것이다. 안승을 다시 왕으로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들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마저의 고구려국에는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은 안승과 그 무리들에 의해 이미 그들 중심의 체계화된 정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을 것이다. 뒤늦게 합류한 부흥군은 전쟁에서의 실패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역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78) 금마저의 고구려국의 대외 사절 파견에 대해서는 청병이 주목적이라는 설(노태돈,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 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619쪽)과 초기에는 청병이 목적이었으나 신라에 대한 외교지원 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설(임기환, 앞의 글, 2003, 312~313쪽), 신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설(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천지조의 국제관계, 『일본학』 15, 1995, 178쪽) 그리고 신라의 對왜국 관계 강화가 주목적이라는 설(김수태, 앞의 논문, 1994, 348쪽 ; 村上四男, 앞의 글, 1978, 62~66쪽, 350쪽)이 있다.

- 마-1) (문무왕 14년(674) 9월) 안승을 보덕왕(報德王)으로 봉하였다. (문무왕) 10년(670)에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였는데 지금 다시 봉한 것이다.('보덕'이란 말은 귀명(歸命)한다는 말과 같은 뜻인지 혹은 땅이름인지 모르겠다.)<sup>79)</sup>
- 마-2) (문무왕 20년(680)) 3월에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여러가지 채색 비단 100단을 보덕왕 안승에게 내려주고 왕의 여동생<또는 잡찬 김의관(金義官)의 딸이라고도 하였다.>으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sup>80)</sup>
- 마-3) (신문왕) 3년(683) 겨울 10월에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판으로 삼고 김씨의 성을 두어 왕경에 머물게 하고 훌륭한 집과 좋은 토지를 주었다.<sup>81)</sup>
- 마-4) (신문왕) 4년(684) 11월에 안승의 족자되는 장군 대문(大文)이 금마저에 있으면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은 대문이 목베여 죽는 것을 보고서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맞서 싸우던 당주 뱀실(溇實)이 전사하였다. 그 성을 함락하여 그 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대문을 혹은 실복(悉伏)이라고도 하였다.><sup>82)</sup>

위의 마-1)의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하고 있다. 신라에서는 다시 한 번 안승을 고구려국의 대표로 승인함으로써 고구려 부흥군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삼국사기』 찬자인 김부식은 보덕왕의 보덕을 귀명(歸命)으로 보아야 할지 땅이름으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미 고려시대에 이르면 이들에 대한 기억은 잊힌 상태였다. 금마저는 오늘날의 익산으로 그 건치연혁으로 볼 때 보덕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땅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보덕을 한자로 풀이한 귀명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귀명은 귀순, 귀부한다는 의미이다. 즉 신라에 귀부한 왕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670년에 고구려왕으로 봉해졌던 안승을 다시 보덕왕으로 봉한 것은 그 의미로 볼 때 격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83)</sup> 문무왕이 안승에

79)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14년 9월조.

8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조.

81)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3년조.

82)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조.

83) 노태돈은 신라가 670년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여 이웃나라로서 형제처럼

대한 책봉호를 신라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명칭으로 바꾸게 된 것은 신라의 의도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보덕왕은 신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안승 개인에 대한 압박이자 이곳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신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봉호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들의 독자성을 인정한 상태의 연합을 고수하였다면, 이후부터는 신라의 부용국으로서 대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고구려 고지에서 격렬하게 치러졌던 고구려 부흥운동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673년 무렵에는 거의 소멸되었다. 살아남은 많은 고구려인들은 신라행을 택하게 되고 차츰 금마저의 고구려국으로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당시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고 크게 활약했던 고연무도 금마저행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금마저의 고구려 집단은 신라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신라 정부의 압박과 우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새로이 합류하는 고구려 유민들로 인해 그 세력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 사절의 다양한 소속부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674년 이후 파견된 고구려국의 사신 목록을 보면 고구려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부가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4)</sup>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국의 자립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를 통제하였다. 이후 보덕국의 일본 사신행에는 반드시 신라 사신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5)</sup>

---

선린관계를 맺자고 한 반면 674년 ‘보덕왕’으로 책봉한 것은 신라왕의 덕에 보답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변신으로서의 위치를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글, 1997, 98쪽).

84) 서영교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구려의 대일외교 사절의 부명을 조사하면서 전후·상하·서남이라는 일률적이지 못한 부명이 공존하게 된 원인을 많은 유민이 보덕국으로 밀려오게 되면서 부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2009, 234~237쪽)

85)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2년 8월 계묘;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5년 11월 정해;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8년 2월 임자삭;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더욱이 신라는 점차 금마저 고구려국의 해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다. 위의 마-2)를 보면 문무왕은 안승에게 누이를 시집보내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는 결혼을 통한 동맹의 확고한 징표로 볼 수도 있지만 안승을 금마저의 고구려민들과 분리하기 위한 선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마-3)에서 보이듯이 그 얼마 후인 683년 신라왕이 왕도로 부르자 그곳에서 벼슬을 하고 김씨성을 하사받고 집과 토지를 받아 진골귀족으로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이때 안승은 더 이상 금마저 고구려국의 왕이 아니라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라에서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했다는 사실로 인해 대개의 연구자들은 이 시기 신라 금마저에 있던 고구려 부흥국을 ‘보덕국’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나 안승에 대한 책봉호가 고구려왕에서 보덕왕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국호마저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서는 ‘보덕왕’, ‘보덕성’, ‘보덕성민’이라는 명칭은 보이나 ‘보덕국’이라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덕성’과 ‘보덕성민’이라는 언급도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왕경에 머무르게 되면서 금마저에 있던 고구려 부흥국이 해체된 이후에 언급된 명칭일 뿐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을 갖고 이를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안승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보덕왕 안승’이라고 언급한 반면, 그 외에는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문무왕 20년 대장군 고연무가 신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고구려왕이 보냈

9년 5월 정해 ; 『일본서기』 권29 천무천황 11년 6월 임술삭.

673년부터 신라가 축자까지 대일외교 사신을 호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일외교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村上四男, 앞의 책, 1978, 350쪽 ; 노태돈, 앞의 논문, 1997, 12쪽 ; 양병룡, 앞의 논문, 1997, 54쪽 ;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2~313쪽), 이 시기부터 신라를 지원하는 대일외교를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 해안, 2003, 234~235쪽 ; 이재석, 앞의 논문, 2010, 44쪽)가 있다. 한편 당의 수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사신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0, 43~44쪽)도 제기되었다.

다고 하고 있다.<sup>86)</sup> 이를 오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다음의 표를 보면 그 원칙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신라의 9서당 설치시기와 대상

서 당	설치시기	대 상	비 고
녹금서당	진평왕 5년(583)	신라인	
자금서당	진평왕 47년(625)	신라인	
백금서당	문무왕 12년(672)	백제민	
비금서당	문무왕 12년(672)	신라인	長槍幢
황금서당	신문왕 3년(682)	고구려민	
흑금서당	신문왕 3년(682)	말갈인	
벽금서당	신문왕 6년(686)	보덕성민	
적금서당	신문왕 6년(686)	보덕성민	
청금서당	신문왕 7년(687)	백제 잔민	

위의 표는 신라의 군사조직의 하나인 9서당 설치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9서당은 위의 표에 보이듯이 그 설치시기가 각각 다른데 신라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문무왕 이후의 군 편성은 백제인과 고구려인들을 흡수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sup>87)</sup> 백금서당은 백제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시기가 문무왕 12년인 672년으로 웅진도독부를 폐하고 이를 신라에 편제시킨 이후였다. 반면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황금서당은 신문왕 3년인 673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덕국의 고구려 유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라사회에 편입된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sup>88)</sup>가 있다. 그

8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하 20년 5월.

87)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38, 1982, 136~137쪽

88) 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8쪽, 이인철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포로들로 편성한 부대로 해석하는 견해(「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 2, 2002, 335쪽), 서영교는 673년 호로하 전투 이후 신라로 향했던 고구려인들 가운데 안승과 다른 계열에 있던 고구려민들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견해(『통일기

러나 673년은 앞의 마-3)을 보면 신라에서 보덕왕 안승이 신라 귀족사회에 편입되면서 금마저 고구려국이 해체된 해이다. 이 무렵 고구려인으로 황금서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고구려인은 안승과 함께 신라 왕경으로 이주한 금마저의 고구려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673년 부흥운동에 실패했던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신라로 들어왔던 시기가 아니라 10년 후 그것도 안승이 고구려왕의 자리를 버리고 신라의 귀족으로 자리잡는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이들은 금마저의 고구려인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당시까지 금마저에서 안승을 왕으로 하는 고구려유민들은 여전히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국호도 고구려로 불리었을 것이다.

한편 금마저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의 반란이 끝난 이후에 두 개의 당이 더 만들어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덕성민이라 하였다. 앞의 마-4)를 보면 안승의 족자되는 장군 대문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남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한 대문의 처형 이후 이에 불만을 품은 남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읍을 차지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읍은 금마저의 고구려국이 있었던 지역일 것이다. 이는 안승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되면서 금마저의 고구려국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아 신라의 지방행정 체제의 일개 읍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인 686년 보덕성민으로 이루어진 서당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이 읍은 신라 지방제도에서 성단위급이며 그 명칭이 보덕성이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황금서당은 안승과 함께 신라 왕경에 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여전히 금마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덕성민으로 구분하여

---

신라의 백제지역 지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345쪽), 한편 정선여는 황금서당의 구성원 중 일부는 안승과 함께 경주로 옮긴 보덕국의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3, 56~57쪽)를 제기했다.

그들의 저항을 신라 국토 내의 국내반란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신라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문의 처형이 신라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신라에서는 이곳을 읍으로 전환하면서 이곳에 신라인 관리들을 파견하여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금마저에 세워졌던 고구려유민들의 나라는 여전히 고구려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또 다른 사례가 앞서 언급했던 『일본서기』에 보이는 고려사신 파견기사로, 그들은 안승이 보덕왕으로 칭해진 이후에도 여전히 고려라는 국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승은 신라 정부의 지원에 의해 금마저 고구려국을 대표하는 왕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친신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승의 이러한 정체성은 금마저 고구려국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신라는 당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구백제 지역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의 제도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고구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의 대외외교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웅진도독부를 축출하고 당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면서 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때로는 금마저의 고구려국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연합전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급박한 대외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자 신라에서는 보덕국의 해체를 준비했고 이러한 신라정부의 요구에 안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국가를 해체하고 신라 왕경으로 가버린 것이다.

이러한 안승의 행적은 여전히 고구려 부흥을 꿈꾸었던 고구려유민들을 좌절시켰고, 마침내 다음 해에는 이들이 신라에 최후의 항거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sup>89)</sup> 보덕성의 반란은 작은 규모가

89) 보덕성 반란의 원인으로는 신라 신문왕의 의도적인 신라통치체제 내로의 편입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바-1) 文明 원년 甲申(신문왕4: 684)에 고구려의 남은 적이 보덕성(報德城)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신문대왕이 장수에 명하여 이를 치도록 하였는데 [취도의 동생] 꿩실을 귀당(貴幢)의 제감(弟監)으로 삼았다. [꿩실이] 출전에 임하여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나의 두 형이 이미 나라 일에 죽어 이름을 길이 남겼는데, 나는 비록 어질지 못하나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구차히 살겠소? 오늘이 그대와 살아서 헤어짐이요 결국 사별일 것이니 상심하지 말고 잘 있으시오.” 적진에 맞서자 홀로 앞에 나가 용감히 싸워 수십 명을 목베고 죽였다.<sup>90)</sup>

바-2) [김]령운은 대대로 고관을 지낸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으므로 명예와 절개를 자부하였다. 신문대왕 때에 고구려의 남은 세력 실복이 보덕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토벌을 명할 때에 [김]령운을 횡금서당의 보기감(步騎監)으로 삼았다. 장차 떠나려 할 때 말하기를 “나의 이번 걸음에 나의 종족과 친구들이 나쁜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 하였다. 실복이 가잠성(假岑城) 남쪽 7리에 나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느 사람이 말하였다. “지금 이 흉악한 무리는 비유컨대 제비 천막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숲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같으니 한번이라도 죽겠다는 각오로 나와서 싸우나 하루살이의 목숨과 같다. ‘막다른 곳에 다다른 도둑을 급박하게 쫓지 말라.’ 하였듯이, 마땅히 좀 물러서서 피로가 극에 달함을 기다려 치면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장수들이 그 말을 그럴 듯하다고 여겨 잠깐 물러났다. 오직 [김]령운만이 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려하니 그 따르는 자가 말하였다. “지금 여러 장수들이 어찌 다 살기를 엿보는 사람으로 죽음을 아끼는 무리이겠습니까? 지난

시도로 인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전제왕권의 확립과 김흠돌난」, 『신라문화』9, 1992, 19쪽 ; 한준수, 「신라 중대 당제수용과 통치체제의 정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75쪽 ; 박명호, 「신라 중대 지배체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54쪽), 고구려 유민으로서 계승의식을 지키고 보덕국의 자치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견해(임기환, 앞의 논문, 2003, 316~317쪽), 서영교는 이 시기 혜성의 출현과 연관해 이를 우려하게 되면서 신라정부에서 보덕성민의 반란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앞의 글, 2009, 229~232쪽). 한편 이형민은 보덕성민의 반란을 1차 대문의 반란은 신라정부에 의해 안승이 왕경으로 소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보덕성의 무장조직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반란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1, 9쪽).

90) 『삼국사기』 권47 열전7, 취도

번의 말을 수궁한 것은 장차 그 틈을 기다려 그 편함을 얻고자 함인데 그대가 홀로 곧바로 진격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옳바르지 못합니다.” [김령윤이 말하였다. “전쟁에 임하여 용기가 없는 것은 예기에서 경계시킨 바요, 전진이 있을 뿐 후퇴가 없는 것은 병졸의 떳떳한 분수이다. 장부는 일에 임하여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어찌 반드시 무리를 좇을 필요가 있겠는가?” 드디어 적진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다.<sup>91)</sup>

위의 기록은 보덕성민의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바-1)과 바-2)를 보면 이 반란의 규모와 영향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보덕성민들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이들로 두 개의 서당을 꾸릴 수 있었다는 것은 실제 금마저에 남아있던 고구려인들의 수가 안승과 함께 신라로 간 인원보다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673년 고구려 고지에서의 부흥운동이 좌절된 후에 신라로 들어왔던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위의 바-2)를 보면 이 반란군은 금마저를 벗어나 가잠성 부근까지 이르고 있으며, 신라에서는 이들 반란군 진압에 곤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반란의 원인은 이들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의 반란은 신라정부에서 고려했던 것보다 커다란 여파를 주면서 신라군을 위협했는데 이들의 반란이 그 지역에 남아있던 백제유민들과 연계되면서였을 것이다.<sup>92)</sup> 앞의 표 1에 보면 백제잔민으로 꾸려진 청금서당은 신문왕 7년인 687년에 꾸려지고 있다. 보덕성의 반란이 해결되고 나서 그들로 백금서당과 적금서당을 꾸린 1년 뒤에 다시 백제잔민으로 서당을 만든 것은 백제유민들의 반란이 보덕성의 반란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91) 『삼국사기』 권47 열전7, 김영윤.

92) 이형민은 보덕성의 고구려 유민들이 백제 유민들과 결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를 보다 자세하게 언급했다(앞의 논문, 2011, 29~33쪽). 다만 이들이 결합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불교계, 특히 보덕의 열반종과 관련해 설명해 놓았다. 그러나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 의미가 백제 유민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이들의 결합 이유로는 약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왕 6년(686)에는 석산현(石山縣), 마산현(馬山縣), 고산현(孤山縣), 사평현(沙平縣)의 4개현을 새로이 설치했는데 이곳은 구백제 지역으로 금마저에서 가잠성으로 추정되는 안성<sup>93)</sup> 사이의 주요 지역이었다.<sup>94)</sup> 실제 신라에서 전국을 9주 체제로 개편한 것은 전 해인 685년이었다. 이들 4개 지역만을 따로 다음 해에 설치한 것은 이 지역의 안정이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4개현을 설치하면서 사비주는 군(郡)으로 웅천군은 주(州)로 삼고, 발라주는 군으로 무진군은 주로 삼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주를 군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지역민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석산현이 부여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반란이나 그에 유사한 반신라적 경향에 대한 처벌성 조치라 할 수 있다.

보덕성의 반란이 진압되고 이들에 대한 사면조치가 취해진 것은 신문왕 4년(684)이었다.<sup>95)</sup> 그런데 위에 언급했듯이 백제 지역에 대한 조치는 2년 뒤인 686년에서야 시작되었으며, 백제잔민으로 구성

93) 가잠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성으로 보는 견해(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77쪽 ; 이형민, 앞의 논문, 2011, 14쪽 ; 정선여, 앞의 논문, 2013, 49쪽) 경상남도 거창 지역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앞의 책, 1977 ; 전용신 편,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3쪽 ; 신은이, 앞의 논문, 2010, 17쪽), 충청북도 괴산으로 보는 견해(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1, 平凡社, 1984, 118쪽 ; 익산의 동편 지역으로 상정하는 견해(윤선태, 「무왕과 미륵사-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관련하여」, 『백제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 2010, 63~65쪽) 등이 있다. 보덕성민들이 안성을 따라 경주로 가지 않고 금마저에 남은 이유는 여전히 고구려 부흥을 꿈꾸며 자립을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가 신라 정부에 의해 꺾이게 되자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왔었던 고구려 고지로 돌아가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가잠성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으로 볼 수 있다. 익산에서 고구려 고지로 가는 경로상에 위치한 안성은 서해안 수로를 이용하거나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이다.

94)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6년 2월조. 석산현은 부여군 석성면, 마산현은 서천군 한산면, 독산현은 예산군 예산읍, 사평현은 당진군 신평면으로 비정되며(박명호, 앞의 논문, 2010, 158~159쪽), 모두 웅천주 소속의 현이자 군의 영현이다(이형민, 「앞의 논문, 2011, 31쪽).

95)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8, 신문왕 4년 11월조.

된 청금서당의 설치는 687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구백제 지역에서 신라에 대한 저항이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의 반란보다 더 지속되었으며, 규모도 보다 컸음을 의미한다. 완산주나 남원소경은 9주가 정비되는 시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보덕성이 진압되면서 부근의 전주나 남원의 저항도 함께 정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부여주에 대한 조치나 나주로 추정되는 발라주에 대한 조치로 보아 지금의 전라남도과 충청남도 지역의 반란은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을 진압한 이후에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9주 정비 이후에 처벌성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백제 유민들의 저항이 보덕성의 반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구백제 지역에서 일고 있던 반신라 감정으로 인한 불손한 움직임을 감지한 신라 정부에 의해 보덕성 반란을 계기로 이틀마져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이 안성까지 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백제 유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전제에서는 이들이 처음부터 연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신라의 신문왕은 680년에 즉위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해에 김흠돌의 난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sup>96)</sup> 그럼에도 683년 안승을 왕경으로 불러들여 벼슬을 주면서 서둘러 금마저 고구려국을 해체하는 과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신문왕의 조처는 구백제 지역에서 일고 있는 불손한 움직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보덕성의 반란은 이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것이다.

보덕성의 고구려인들은 신라 왕경인 경주가 아니라 북으로 향하였는데, 이는 자립을 위한 격렬한 저항이었을 뿐 신라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97)</sup> 이들이 향하고자 한 곳

96) 김흠돌의 난에 대한 연구는 김수태, 앞의 논문, 1992 ;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난의 재검토」, 『대구사학』, 1999 ; 박명호,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 진골귀족의 관료화 시각」, 『한국사학보』31, 2008 참조.

97) 금마저의 고구려유민들이 가잠성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형민은 보덕성민

은 고구려 고지로 한성이나 평양방면 이었을 것이다. 이미 당은 안동도호부를 완전히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긴 뒤였다.<sup>98)</sup> 그러므로 평양 부근은 당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곳 어딘가에 그들의 생존을 위한 터전을 잡기 위해 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신라 정부에게는 북에서의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이들의 행보를 막아서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신라군에 참패하게 됨에 따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와 소멸은 크게는 거대제국 당의 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변혁기의 산물이며 작게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신라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의 하나였다. 무엇보다 고구려 멸망 후 그 유민들의 생존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 5. 맺음말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고지에서는 당의 지배에 저항하는 유민들에 의해 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검모잡과 안승의 세력이다. 검모잡은 안승을 한성에 맞아들여 왕으로 삼아 부흥운동을 전개하자 그 세력 확대를 경계한 당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안승이 검

---

들의 반란이 가잠성과 보덕성 두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보덕성에만 국한될 경우 고립되어 수단과 방법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웅천주 지역의 백제 유민들의 일정한 협조를 얻기 위한 것과 그들의 이전 활동 지역이었던 황해도 일대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앞의 논문, 2011, 14~15쪽)를 제기하였다. 정선여 역시 이들이 자신들의 옛 세력 근거지 및 활동 지역이었던 곳을 향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서해안을 통해 요동 지역의 보장왕과 고구려 유민세력과의 결합까지도 예상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2013, 48~51쪽).

98) 당은 의봉 원년(676) 2월 안동도호부를 요동군 고성으로 옮기고, 다음 해인 2년(677) 신성으로 이치하였다(『구당서』 권39 지리지2, 하북도 안동도호부).

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투항하자 670년 6월경 신라에서는 이들을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안치시켰다. 신라에서 안승을 받아들여 금마저의 땅을 내주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그가 갖고 있던 명분상의 고구려부흥군의 수장이라는 위상이었을 것이다. 이는 웅진도독부를 두고 당군과 대립하고 있는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고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들의 존재가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을 신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모잠이 살해되고 안승이 신라로 투항한 뒤에도 673년까지 고구려 고지에서의 대당항전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평양을 비롯한 황해도 일대에서는 밀고 밀리는 접전이 이어졌는데 그 세력에 대해 『신당서』 고려전에서는 ‘평양의 패잔병’이라 하였는데, 이들의 주요 활동지역이나 세력 규모와 조직력으로 볼 때 한성 고구려국의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뒤에 금마저의 고구려국에서 대장군으로 언급되는 고연무가 이들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활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분열로 인해 한때 밀리기도 했지만, 고구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당활동으로 인해 서둘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도움이 계속되고 있음도 이들이 다시 당군에 대한 항쟁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가 웅진도독부가 있는 백제고지를 정복한 이후에 신라의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에 대한 지원은 점차 소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더욱이 당에서는 부흥운동 세력이 장기화되고 신라의 후원이 있음을 알고 신라에 대한 공방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자 고구려 부흥군은 점차 밀리게 되었다. 황해도 지역을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의 호로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되면서 이들은 신라로 향하게 되었고 고구려고지에서의 당군에 맞선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4년 만에 종결짓게 되었다.

금마저에 정착한 안승집단은 신라의 승인하에 국가로서의 위상과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안승과 함께 한 무리들을 중심으로 고구려식의 관등체계를 정비하고 5부도 재편하였을 뿐 아니라 왜국으로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는 고구려 고지에서 활동하는 부흥군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673년 대당항쟁에 실패한 후 신라에 합류한 고구려 부흥군 역시 금마저에 정착하게 되었다. 뒤늦게 합류한 부흥군은 전쟁에서의 실패로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기득권을 잡고 국가체계를 꾸려놓은 금마저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674년 신라는 안승을 보덕왕으로 새로이 책봉하였는데, 이는 안승에 대한 책봉호일 뿐 국호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고연무가 신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안승이 신라 왕경으로 가서 귀족으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꾸려진 9서당의 하나인 황금서당의 구성원을 고구려인으로 지칭하거나, 왜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 고려를 칭하는 것에서 여전히 고구려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승을 보덕왕으로 책봉한 것은 이전과는 달리 금마저의 고구려국을 신라의 부용국으로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승이 신라로 간 뒤 금마저의 고구려국은 해체되면서 신라의 지방체제로 흡수되는데 이때 금마저의 고구려인들이 터전을 잡고 있던 곳을 보덕성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이 반란이 진압된 뒤에 황금서당과 달리 이들을 중심으로 두 개의 서당을 만드는데, 이들을 보덕성민이라 하였다.

보덕성에 남게 된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에 반기를 들게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의 안성인 가잠성까지 진출해 신라에 대항하였다. 이들의 반란 규모가 컸던 것은 백제유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보덕성민들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도 구백제 영역에서의 반란은 좀 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유민들의 반란이 이처럼 거세었던 것은 그들의 반신라 경향이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구백제 영역의 분위기로 인해 신문왕은 금마저 고구려국의 해체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보덕성에 잔류했던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부흥이 좌절되자 고구려 고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북쪽을 향해 갔지만 결국 신라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금마저 고구려국의 존재와 소멸은 크게는 거대제국 당의 등장으로 인한 동아시아 변혁기의 산물이며 작게는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으로 신라가 자리 매김하게 되는 과정의 하나였다.

(원고투고일 : 2019.1.10.,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안승, 금마저, 고구려 부흥운동, 고연무, 보덕왕, 보덕성

## <참 고 문 헌>

### 1. 원전자료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감』, 『책부원귀』, 『당회요』, 『자치통감고이』 『일본서기』

### 2. 저서

국사편찬위원회, 『중국정사조선전 2』, 국사편찬위원회, 1988.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출판부, 2009.  
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 혜안, 2003.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고대편』, 일조각, 1982.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전용신 역, 『역주 일본서기』, 일지사, 2002.  
전용신 편, 『한국고지명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권덕영 외,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井上秀雄, 『譯註 三國史記』1, 平凡社, 1980.

### 3. 논문

강경구, “고구려 부흥운동의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 47(한국상고사학회, 2005); 89~113, <http://uci.or.kr/G704-000730.2005.47.47.003>  
김갑주,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 『통일기의 신라사회연구』(대구: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7); 351~380.  
김강훈, “고구려 멸망 이후 부여성 권역의 부흥운동” 『대구사학』 127(대구사학회, 2017); 39~78.  
\_\_\_\_\_,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1~38, <http://uci.or.kr/G704-001528.2016..99.010>  
\_\_\_\_\_, “책성 권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고정문” 『역사교육논집』65(역사교육학회, 2017); 241~276.  
김수진, “당경 고구려 유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7);

1~286.

김수태, “신라 신문왕대 전제왕권의 확립과 김흠돌난” 『신라문화』9(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2); 157~179.

\_\_\_\_\_, “통일기 신라의 고구려유민지배”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1. 고대편·고려시대편』(서울: 일조각, 1994); 328~355.

김은숙, “백제부흥운동 이후 천지조의 국제관계” 『일본학』15(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5); 144~189.

김태식,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대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97); 43~90.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38(한국사연구회, 1982); 129~156.

\_\_\_\_\_,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한국고대사논총』8(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6)

\_\_\_\_\_, “대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3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7); 1~17.

\_\_\_\_\_, “대발해 일본국서에서 운위한 ‘고려구기’에 대하여”, 『변태섭 화갑기념 사학논총』, 서울: 삼영사, 1985); 605~626.

박명호, “신라 중대 지배체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0); 1~228.

\_\_\_\_\_, “신문왕의 교서를 통해 본 김군관의 정치적 성격 : 진골귀족의 관료화 시각” 『한국사학보』31(고려사학회, 2008); 45~75,  
<http://uci.or.kr/G704-000690.2008..31.001>

서영교,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헬리헤성” 『인문학연구통권』78(충남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2009); 225~254, <http://uci.or.kr/G704-001795.2009.36.3.010>

\_\_\_\_\_, “통일기 신라의 백제지역 지배”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316~345.

신은이, “보덕국의 건국과 그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대구, 2010); 1~40.

\_\_\_\_\_, “보덕국의 탄생과 그 의미” 『대구사학』132(대구사학회, 2018); 237~273.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항쟁” 『사총』46(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7); 29~57.

- 윤선태, “무왕과 미륵사-익산의 역사지리적 환경과관련하여” 『백제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심포지엄(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이미경, “신라의 보덕국 지배정책” 『대구사학』 120(대구사학회, 2015); 101~131, <http://uci.or.kr/G704-000893.2015.120..006>
-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정년기념논총2)』(사계절, 2014); 60~77.
- 이선호, “고구려 유민사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서울, 2000); 1~82.
- 이재석, “7세기 후반 보덕국의 존재 의의와 왜국” 『일본역사연구』31(일본사학회, 2010); 35~52, <http://uci.or.kr/G704-001807.2010..31.004>
-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72(한국역사연구회, 2009); 131~157, <http://uci.or.kr/G704-000054.2009..72.012>
- 이형민, “신문왕대 보덕성민의 반란과 신라의 대응”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대구, 2012); 1~41.
- 임기환,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2(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 \_\_\_\_\_, “보덕국고” 『강좌한국고대사』10(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281~320.
-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고구려국’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82-2(사회과학출판사, 1982); 36~39.
- 정선여, “신라 신문왕대 보덕국민의 반란” 『역사와 담론』66(호서사학회, 2013); 35~68. <http://uci.or.kr/G704-001545.2013..66.002>
- 정원주, “당의 고구려 지배정책과 안승의 행보” 『한국고대사탐구』29(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75~118.
- 조법중, “고구려유민의 백제 금마저 배치와 보덕국” 『한국고대사연구』78(한국고대사학회, 2015); 97~138, <http://uci.or.kr/G704-000848.2015..78.008>
-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 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309~325.
- 최재도, “한성의 고구려국 재검토” 『동북아역사논총』47(동북아역사재단,

- 2015); 139~169, <http://uci.or.kr/G704-002002.2015.47.001>
- 최홍조, “신문왕대 김흠돌난의 재검토” 『대구사학』(대구사학회, 1999); 29~66.
- 한준수, “신라 중대 당제수용과 통치체제의 정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2010); 1~212.
- 新藏正昭, 「天智朝の對外關係と小高句麗」, 『日本書紀研究』20, 塙書房, 1996.
-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75-1, 2016.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反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2, 1927(『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1960).
-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1966(『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1978).

<Abstract>

## Anseung(安勝)'s Direc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Revival Movement of Goguryeo

Jung. Weon-joo

After the fall of Goguryeo, the revival movement of former Goguryeo took place in ex-Goguryeo territory, the most well-known is the revival Goguryeo kingdom, which was conducted in Hanseong by Geommozam(검모잠) and Anseung(안승). The Tang Dynasty sent Gogan(고간) as its army commander to punish them. Anseung killed Geomozam and surrendered to Silla, and Silla placed them in Geummajeo(금마저), now Iksan(익산). The period was around June 670, and in July, Anseung was appointed as King of Goguryeo by the King of Silla. Silla fought against Tang Dynasty by force to defeat Unjin Dodokbu(웅진도독부) and was supporting Goguryeo in Hanseong(한성). However, as its influence expanded to the Yalu River(압록강) basin zone, Geomozam was killed in a conflict between the Geomozam factions, which wanted to move to Pyongyang(평양), the capital of former Goguryeo, and the Anseung forces that wanted to move to Silla during the war with Tang Dynasty. This seems to be the first suggestion from Silla to go to Geummajeo, judging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rol the 'Hanseong Goguryeo' government located if its base moved to Pyongyang. Silla appointed Anseung, who settled in Geummajeo, as king of Goguryeo, in order to justification for controlling the revivalist forces, which is fighting against the Tang Dynasty in Goguryeo's old territory.

Geomozam was killed and Anseung went to Silla, but the revival movement in former Goguryeo's Territory was fierce until 673. In particular, there were push-and-pull battles in the area of

Hanganghae province(황해도) including Pyongyang, the group of resistance in which was called "the remnants of Pyongyang"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forces of Hanseong Goguryeor in terms of their major activity area, size and organizational. Goeyeonmu(고연무), who was known as a general in Goguryeo of Geummajeo, appears to have been the leader of the group. Despite the loss of Liaodong Tu-Hu-Fu(안동도호부) in Pyongyang due to the division of the leadership, they seem to have been able to get over the crisis in haste because of their activities against the Tang Dynasty in Goguryeo. The continuing aid of Silla could have made them continue to fight against Tang Dynasty army. However, after Silla conquered Baekjae's old territory with Unjin Dodokbu, Silla's support for the Goguryeo revival movement group was gradually shifting to a formal and demonstrative manner. Moreover, the Goguryeo revival army gradually retreated to the south as it became more aggressive in its fight against Silla and its crackdown on them after learning that the revival movement was prolonged and connected with Silla in the Tang Dynasty. As they were headed for Silla after losing the Hanganghae Province and defeating the Battle of Horoha(호로하) along the Imjin River(임진강) basin, Goguryeo revival movement group's fighting against the Tang army in Goguryeo's Old Territory came to an end in four years.

The Anseung group settled in Geummajeo reshuffled the Goguryeo-style system of lanterns and reorganized it into a five-part system and established its status as a state. They also began diplomatic affairs by sending envoys to Japan. After the revival movement in Goguryeo's former Territory failed in 673, its group was not able to take the lead in Geummajeo due to the power of Anseung, which was already in place. Silla appointed Anseung as the King of Bodeok in 674, which means that his kingdom has been downgraded to Silla's vassal. But the names of

the kingdom still seems to have been called Goguryeo, considering the names used externally.

Silla brought Anseung to Gyeongju(경주) in 683 and incorporated him as a member of the Jingol nobility, disbanding Geummajeo's Goguryeo Kingdom and absorbing it into the local control system of Silla named Bodeok Fotress(보덕성). There was a revolt in Bodeok Fortress, and the rebellion expanded in conjunction with the Baekje Epitaph. The Goguryeo Epitaph of Bodeok Fortress advanced to Gajam Fortress(가잠성), the region of Anseung at this moment, and resisted Silla, but failed. Baekjae Epitaph's resistant continued event after the breakup of the rebellion in Bodeok Fortress, We can know from the records that the local system for its Old Territory was establish and they were reorganized into the Nine Seodang Guard system after a year or two later. Given the scale of Baekjae Epitaph's resistant, the anti-Silla tendency seems to have been formed for a long time. The Silla government, which grasped the atmosphere of the Baekje Old Territory, rushed to dismantle the Goguryeo of Geummajeo in haste, and the reaction could be seen as the rebellion of Bodeok Fotress' s Goguryeo Epitaph combined with the Baekje Epitaph. As the rebellion of Bodeok Fotress's Goguryeo Epitaph was subdued by Silla, their traces disappeared into history.

Key words : Anseung(安勝), Geummajeo(金馬渚), the revival movement of Goguryeo, Goeyeonmu(高延武), the king of Bodeok, Bodeok Fotress(報德城)